

사 회

전남대 기성회비 128억 과다 징수

거점 국립대학 중 최고 ... 학생들 등록금 부담 가중

교과부 국정감사

전남대를 비롯한 국립대학들이 기성회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이 5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의 지난해 기성회계 순세계잉여금이 7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남대가 128억8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대 105억5200만원, 전북대 100억2400만원, 충북대 105억3800만원, 경북대 91억5000만원

등이었다.

권 의원은 각 대학의 기성회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입 결산액이 당초 예산액을 크게 초과하는 반면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보다 적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즉 국립대학들이 예상 소요액보다 기성회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각 대학의 재학생 1인당 기성회비 과다계상액을 산출한 결과 경상대 62만5000만원, 충북대 60만3000원, 전남대 48만3000원, 전북대 46만9000원 등이었으며 10개 대학 평균 37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국립대학이 학생들한테서 걷는 기성회비로 잉여금을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기성회비를 재산정해 등록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대는 “타대학이 보통 초과회비 수입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반면, 전남대는 초과회비수입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해 차년도 재원으로 활용(등록금 인상을 억제 및 최소화 위해)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5일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외국어고 설립 관련 시민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外高 설립 공청회 찬·반 ‘팽팽’

찬성 “글로벌 인재 육성·타지역 유출 막아야”

반대 “공교육 붕괴...공공성·평등성 실현해야”

광주 외국어고 설립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5일 열린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찬성측 토론자들은 인재 역외유출방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설립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반대측에서는 교육격차를 확대하고 공교육 붕괴를 부르게 때문에 외고 설립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김남순 조선대학교 사범대학장은

“광주시가 문화도시를 지향한다면 학교교육에서도 문화의 중요한 매개·소통장구가 되는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언어를 가르치는 외고 설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상일 광주시 외국어 교육협의회장은 “인구 140만 도시 광주에서 언제까지 전권일률적인 교육을 고집할 수는 없다”며 “글로벌 인재육성과 인재의 타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외국어고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광주

지부장은 “교육의 목적인 공공성과 평등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공교육을 강화해 제2외국어 학습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국어고 추가 설립은 불허해야 하며, 기존의 외국어고도 임시 위주가 아닌 본래 취지대로 운영하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훈 광주교육희망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외고 설립되면 광주에는 공립형·자율형 고등학교 모두 8개교가 생기게 됨으로써 이들 일부학교와 나머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류·고로 나누어지면서 학생·학교·지역 간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고교평준화의 틀이 붕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혁! 전남 5개 학교 학생들 방사능 지하수 마신다?

교과부 국감 자료

전남지역 5개 학교 학생들이 자연방사성 물질을 다량 함유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 등이 국회 교과위 소속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남 지역 5개 초·중·고교를 비롯한 전국 66개교의 지하수에 자연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O·S·K초교, 또 다른 S초교와 S중 등 5개 학교는 지난해 2009년 환경부가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물질 함유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자연방사능(라돈) 검출 지역으로 나타난 5개 지역에 포함된 학교다. 이들 학교가 방사능 검출 지점과 동일한 지반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렸다면 음용수에 방사능물질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연방사능 검출 지자체에 대책마련을 권고했지만, 지자체들이 학교측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방사능 저장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자연방사성 물질은 호흡기나 마시는 물 등을 통해 사람 몸에 유입될 수 있으며, 특히 라돈은 폐암과 위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장회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 내일부터 인수작업

11월8일 취임

장회국 광주시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위원장 김준태)는 7일부터 시교육청에 대한 본격적인 업무 인수인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인수인계 업무보고는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총괄보고와 분청 10개 과 및 1개 탐방관 등 과별보고, 실무협의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주요 일정은 지난 4일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6일 과별보고 및 실무협의가 5일간 진행된다.

취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업무보고 기간과 국정감사, 전국체전, 시의회 시장질의 등이 겹쳐 시교육청의 일정을 최대한 배려했다”며 “절저하게 교육정책 중심 인수업무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 당선인은 6·2지방선거에서 광주시교육감에 당선됐으며 오는 11월8일 취임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중등교사 임용 경쟁률 20대 1 넘었다

광주와 전남지역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평균 20대1을 넘어섰다. 광주시교육청은 5일 응시원서 최종 마감 결과 공립은 143명 선발에 4371명이 지원, 30.5대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립은 6명 선발에 112명이 지원, 18.7대1이었다. 전남은 공립 112명 모집에 3243명이 지원, 29대1을, 사립은 2명 모집에 29명이 지원(14.5대1)했다. 최고 경쟁률은 광주는 가정 교과에서 2명 모집에 195명이 지원, 97.5대1을 기록했으며 전남은 국어가 24명간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고교평준화의 틀이 붕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생니 뽑은 MC몽 기소” 검찰시민위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MC몽의 기소 여부를 묻은 결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민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지검은 MC몽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물었고, 시민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음에 따라 조만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식약청 “전북 내장 먹어도 안전”

서울시 발표 ‘카드뮴 낙지’는 중국산 ... 검찰 수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북을 비롯한 폐우에 대한 중금속 함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장을 포함한 전체 부위를 먹어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은 국내산 전북 10건에 대해 내장을 포함한 전체부위의 납과 카드뮴 함량을 조사한 결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잠정추천섭취허용량(PTWI) 대비 납 함량 0.03%, 카드뮴 함량 0.69%로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PTWI 대비 100% 이하이면 대

체로 안전하다고 보는데, 다른 음식물을 통한 중금속 섭취량을 함께 감안해 봤을 때 위험도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카드뮴 낙지’ 발표와 관련,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는 낙지 판매업체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13일 서울시는 낙지 막걸리와 내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으며, 관계당국은 조사 당시 국내산이라고 한 낙지가 중국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광주MBC문화탐방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기획여행 신고업체

이월다 더 좋을순 없다!!

무안→정곡(소림사) 직항 전세기

삼국지 중원의 땅 중국의 古都 하남성으로...
세계 유네스코가 지정한 찬란한 문화유산의 총 집합체
10월 16일~11월 13일 (매주 수, 토) 단,9회 한정

구분	상품명	요일	출발날짜	상품가(원)
관광	소림사 / 운대산(운문석굴) 4일	수	10/20, 27 11/3, 10일	699,000
	소림사 / 태향산(운문석굴) 4일			799,000
	소림사 / 서안 진시황릉마용(운문석굴) 4일			859,000
	소림사 / 운대산 / 개봉포청천(운문석굴) 5일	토	10/16, 23, 30 11/6, 13일	749,000
	소림사 / 서안 진시황릉마용 / 양귀비의 화형지(운문석굴) 5일			899,000
트레킹	충산(송림사) / 운대산(운문석굴) 트레킹 4일	수	10/20, 27 11/3, 10일	799,000
	그랜드 캐년 태향산 대암굴 트레킹 4일			799,000
	화산 / 충산 / 운대산 중주 트레킹 5일	토	10/16, 23, 30 11/6, 13일	899,000
	태향산 / 운대산 중주 트레킹 5일			899,000

New 실속상품 출시				
구분	상품명	요일	출발날짜	상품가(원)
관광	소림사 / 운대산(운문석굴) 4일	수	10/20, 27 11/3, 10일	549,000
	소림사 / 태향산(운문석굴) 4일			699,000
	소림사 / 서안진시황릉마용(운문석굴) 4일			759,000
트레킹	충산(송림사) / 운대산(운문석굴) 트레킹 4일	수	10/20, 27 11/3, 10일	699,000
	태향산 / 운대산 / 충산 트레킹 5일	토	10/16, 23, 30 11/6, 13일	799,000

광주MBC문화탐방 전세기 사무실 [문의전화] 062)226-607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양극정부인가조건)
◎ 렌드뱅크여행사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42-10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1분
해질 18시 10분
달출 04시 27분
달질 16시 53분

일교차 커요

오전에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많아지
겠다.

광주 날씨

맑은 뒤 흐림 11/24℃
맑은 뒤 흐림 12/22℃
맑은 뒤 흐림 16/21℃
맑은 뒤 흐림 12/24℃
맑은 뒤 흐림 8/23℃
맑은 뒤 흐림 10/24℃
맑은 뒤 흐림 10/23℃
맑은 뒤 흐림 11/24℃
맑은 뒤 흐림 10/23℃
맑은 뒤 흐림 11/24℃
맑은 뒤 흐림 10/24℃
맑은 뒤 흐림 9/24℃
맑은 뒤 흐림 15/20℃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보통

주의

낮음

〈오전〉 바다

동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0.5m

0.5~1.0m

서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1.0~1.5m

〈오후〉 바다

동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0.5m

0.5~1.0m

서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1.0~2.0m

목포

00:28

12:50

여수

07:45

20:04

05:56

18:15

01:26

13:46

◇주간날씨

기상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7(목)

8(금)

9(토)

10(일)

11(월)

12(화)

날씨

최저/최고

13/25

14/23

15/23

13/24

14/22

14/20

2500만 고객을 위한 블록버스터 카드

Touch 1 카드 출시!

나라의 반을 움직일 카드,
고객이라면 이제 지갑 속에 하나SK카드 하나만

하나SK카드

5437 0728 5678 9032

HANASK KSR KIM YONG

07/12

MasterCard